

“같은 집에 살면서 어떻게 모른 척 해요”

‘지구집’에 사는 한비아의 가족 사랑

윤민영 | 여성조선 기자

지구촌이란 말이 성행하던 무렵부터 우리는 세계 각지를 향해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러한 관심은 고도의 발달된 기술이나 언어, 문화 등에 머문 듯 하다. 오히려 굶주리고 아파하는 세계의 난민들에게엔 장님이 되어버렸으니 말이다.

‘지구집’에 사는 한가족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의 즐거움 중 하나는 어록을 남기는 것이다. 간혹 짧은 문장이나 단어 하나가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잊혀지지 않을 때도 있다.

그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역시 그랬다. 꽤 빠른 속도로 풀어놓는 말속엔 뼈가 있었고, 이야기의 핵심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렇게 마주앉은 그녀는 오지여행가보다 월드비전의 긴급구호팀장이란 수식어를 훨씬 좋아하고 또 잘 어울렸다. 긴급구호란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물, 식량, 의약품, 천막 등을 배급하는 일을 뜻한다.

언론에 비중 있게 보도되지 않았던 ‘이란의 지진’ 문제로 긴급구호를 나서기 3일 전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지구집’이란 단어를 언급했다.

“보통 ‘지구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난 ‘지구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투명한 유리로 방을 나눠둔 집. 그럼 옆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훤히 들여다보이잖아요.

옆방에서 아프다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그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어떻게 돕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돕게 되겠죠. 따지고 보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들을 돕는 거겠지만.”

관심과 행동의 연결고리

다른 피부색, 다른 언어를 가진 이들을 가족이라 생각하면 그녀가 돈도 밥도 안되는 일에 열정을 소진하는 건 당연할지 모른다.

더구나 한국은 가족 간의 유대감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남다르지 않은

가. 하지만 그들을 가족이라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행동으로 연결을 시키는가에 있다.

얼마 전 유니세프 홍보사절로 임명된 텔런트 이병현이 이런 말을 했었다.

“굶주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대할 때면 늘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도와줄 일이 없을까 막연하게 고민만 했는데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의 인사말처럼 관심을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법을 모르는 건 아닐까? 800원짜리 링거 한 병 맛을 돈이 없어 탈수증으로 목숨을 잃고, 천 원으로 어린이 7명에게 홍역예방접종 백신을 제공하거나 2명에게 분말영양식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아직은 너무 많다.



한비아 역시 1993년 세계 여행을 떠나기 전까진 긴급 구호 활동이나 난민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가족'을 위해 세계 각지를 제 집 드나들 듯 하고 있다. 그녀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얼마든지 관심을 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가족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일 수 밖에 없다**

“사실 전 정기후원을 권하고 싶어요”

그녀는 사람들의 관심이 지속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순간의 측은한 마음으로 많은 이들이 후원에 나서지만 금세 소원해진다는 것. 매달 2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정기후원을 권하고 싶단다.

“돕는 방법은? 간단해요. 월드비전(www.worldvision.or.kr)에서 진행하고 있는 결식아동 급식사업이나 북한사업, 해외빈곤국가의 지역개발사업, 긴급구호사업 등을 후원하거나 국내·외 아동이나 가정과 결연을 맺을 수 있고요.

매월 보내주는 돈은 결연 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해 쓰입니다. 정기적으로 보내는 후원금 외에 아이의 생일이나 명절 등에 선물금(선물을 대신해 보내는 돈)을 보낼 수도 있어요. 생각해봐요. 매달 카드, 핸드폰 요금 등이 빠져나가는데 ‘월드비전’이라고 찍혀있는 걸 보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이들의 통장에서 다달이 2만원이 빠져나가는 동안 ‘지구집’의 수백만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